농약으로 인한 피해구제 수월해졌다

피해분쟁조정위 설치 근거 · 항공방제업 신고제 신설 유통 등 농식품부,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약관리법'이 지난 15일 일부개정 · 공포(법률 제18256호)되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은 농약 비산(飛散)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농약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신설 유통 ▲농약의 단속 강화 등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내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중 유통이 불가한데,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흘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 · 기간 등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농업 · 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방제 시 드론 및 무인 헬리콥터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신설해, 비산(飛散)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분쟁조정 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약이 불법 또는 위법으로 유통될 경우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소관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연계하여 유통 농약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2022년 말까지 정비하는 등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5년 연속 '콜센터 서비스 KS 인증'

전북은행, 지방은행 유일 수성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 · 사진)은 국가 표준서비스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KSA)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정기심사를 통과해 5년 연속 '콜센터 서비스 KS 인증' 자격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지난 2017년 지방은행 최초로 콜센터 서비스 부문 KS 인증을 획득한 이후 지속적으로 고객센터 업무를 표준화하고 다양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상담 품질 향상에 힘쓴 결과 5년 연속 KS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KS인증은 국가가 제정한 한국 산업표준 이상의 서비스 능력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인증제도로, 콜센터 서비스 분야는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표준화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에 한층 더 귀 기울이는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마케팅전문가로 '레벨 UP!'

전북농협, 상호금융 넥스퍼츠 발대식

전북농협은 21일 지역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지난해 12월 신규 입사한 농축협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금융 넥스퍼츠(Nexperts) 발대식을 가졌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1일 지역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지난해 12월 신규 입사한 농축협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금융 넥스퍼츠(Nexperts) 발대식을 가졌다.

넥스퍼츠(Nexperts)는 영문 'N'+전문가(expert)의 합성어로 'N'은 농협(NH)과 다음(Next)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내포해, 농축협의 신규직원을 전북농협 상호금융의 차세대 마케팅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전북농협은 정기적인 마케팅 교육 실시와 SNS를 통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활동사례를 공유해 매월 우수 직원을 선발 · 시상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입사 200일을 축하하는 깜짝이벤트가 이루어졌으며, 중앙본부 강사 초청 마케팅 현장교육과 동김제농협 봉남지점 최운임 지점장의 사업 추진 우수 사례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업인의 행복을 위해서 변화와 혁신에 주저하지 말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젊은 패기로 농협에 활력소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넥스퍼츠 활동을 통해 농협과 임직원의 동반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난달부터 내려진 잦은 비

'인삼 곰팡이병' 발생 우려

농진청 "사전 예방해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잦은 비로 인해 인삼 재배지의 점무늬병과 잿빛곰팡이병 발생 우려가 높다며 철저한 예방과 방제를 21일 당부했다.

최근 기상자료를 보면, 올해 5월 전국 강우 일수는 14.3일로 최근 10년 평균(8.1일)보다 6.2일 더 많았다. 특히 5월 평균 강수량은 140.7mm로 최근 10년 5월 평균(81.3mm)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무늬병과 잿빛곰팡이병은 인삼 잎이 수분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해가림 시설이 불량하게 설치된 밭에 빗물이 들어오면서 발생한다.

점무늬병은 잎과 줄기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공기 전염성병으로 인삼의 전 생육 기간 동안 발생한다. 초기에는 연한 갈색 반점이 생기고 이것이 커지면서 황색 또는 흑갈색으로 변하다, 마지막에는 잎이 누렇게 변해 쉽게 떨어진다. 잿빛곰팡이병은 잎, 줄기, 뿌리, 열매 등 인삼의 모든 조직에서 발생하는 병으로, 줄기 지제부(지표면)의 상처를 통해 뇌두(인삼 머리부분)를 썩게 하는 등 수확량에 큰 영향을 준다.

곰팡이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인삼 잎이 모두 자란 6월 중순 이후, 병이 발생하기 전 친환경자재인 석회보르도액(6-6식 석회액과 황산구리액을 혼합하는 비율)을 7일 간격으로 4회~5회 뿌린다. 병이 확산할 때는 전용 살균제를 사용한다. 같은 성분의 약제를 연이어 사용하면 병원균에 약제 저항성이 생기므로 작용 기작이 다른 성분의 전용 살균제를 번갈아 뿌려주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동휘 인삼과장은 "기상청은 올여름이 예년보다 덥고, 6월 하순 시작하는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며 "농가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대한민국 동행세일 맞이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특판

전북중기청, 내달 9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이해 21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하며,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지난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판매 중으로,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앱 19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전통시장관〉

구분	쇼핑몰명(운영기관명)	할인율
1	우체국전통시장(우체국쇼핑)	5~30%
2	온누리전통시장(현대이지웰)	5~20%
3	온누리필도시장(인터파크비즈마켓)	5~60%
4	온누리전통시장(이제너두)	10~33%
5	온누리콘데이(온누리콘데이)	3~5%
6	가치삽시다(중소기업유통센터)	5~20%
7	음지락배송(신도음지락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	10~20%
8	위메프오(위메프오)	3~40%
9	지마켓(이베이코리아)	5~30%
10	옥션(이베이코리아)	5~30%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상품권 10% 할인 + 소득공제 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제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전통시장관 10곳에서는 동행세일 기간 동안 지역특산물 ·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 및 온라인 전통시장관 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쇼핑몰별 기준금액 이상 구매 시 자동응모, 퀴즈풀기, 선착순 구매 등 상이하므로 해당 쇼핑몰에서 미리 확인해야한다.

전북중기청 윤종욱 청장은 "이번 특별판매를 계기로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찾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길 기대한다"며 "전통시장 이용 시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LX, 창사 44주년 맞아

준법 · 윤리경영 강화 박차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 LX공사)가 창사 44주년을 맞아 준법 · 윤리경영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LX공사는 최근 공공기관의 비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LX공사 김정렬 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들은 준법 ·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다지고자 임원 직무청렴계약과 내부직원 청렴 레벨-업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렴계약에는 직무관련 금전 · 향응 등 수수 금지, 부당 이득 수취 및 지시 금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거래 등 금지, 부당 인사 청탁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LX공사는 또한 앞으로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 레벨-업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여름철 대비

차량계 건설기계 재해예방 캠페인

새만금개발공사는 21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사무소에서 시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CEO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는 21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사무소에서 시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CEO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직접 강연에 나선 강팔문 사장은 공사의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을 소개했다. 또한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듣고 공사와 시공사가 협력해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을 가장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강팔문 사장은 "안전 관련 법규와 규제가 강화되고,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안전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일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새만금 건설현장에서 한 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부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CEO 안전교육을 계기로, 새만금 수변도시 공사현장에서는 재해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 캠페인은 작업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적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공사 참여자들이 모두 모여 오감을 동원, 공정에 필요한 안전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공사는 6월 중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 개발사업본부장이 직접 지휘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이행상태를 확인하는 등 선제적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양충모 새만금청장 "한일간

활발한 교류 · 협력 기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21일 '서울재팬클럽'의 모리야마 이사장 등과 만나 주한 일본 기업들과의 교류 ·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양 청장은 "새만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RE100 실현을 목표로, 스마트그린 산단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RE100 캠페인 확대에 따른 새로운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새만금에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간 코로나19로 서울재팬클럽 소속의 일본 기업들과 직접 만나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개선 상황에 맞춰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리야마 이사장은 "새만금에서 추진중인 재생에너지 등은 일본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라면서 "기회가 되면 회원사들과 새만금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효율적인 농어촌용수 공급과 관리를 위해 주생면, 아영면, 보절면, 수지면과 수질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원 농어촌공, 수질 개선 위한 협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충호)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효율적인 농어촌용수 공급과 관리를 위해 주생면, 아영면, 보절면, 수지면과 수질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이충호 지사장, 소민수 수자원관리부장, 강인식 주생면장 등 각 면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이 참석, 금풍저수지(주생면), 구상저수지(아영면), 용평저수지(보절면), 수송저수지(수지면) 총 4개 저수지에 대한 수질 보전을 통해 쾌적한 농어촌 환경 조성 및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용수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수질관리 계획 수립과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저수지 상류오염원 관리 미흡과 관련 대책 추진지연 등으로 수질개선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번 업무협약으로 저수지 상류유역 오염원 감축, 유입하천 수질개선,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수질개선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협력 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담당자와 지역농민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직 ·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수질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남원=김기두기자